

상시방역체제 구축을 통한 예방에 주력

- 연중 발생 가능성 상존 -



한 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은 6월 4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림원 회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외 발생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홍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2시간 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지정토론자로 모인필 교수(충북대 수의과대학), 송창선 교수(건국대 수의과대학), 이환중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박승철 회장(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 재홍 교수는 동남아시아·아프리카와 같은 열대지방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HPAI가 연중 발생하는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연중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H5N1의 병원성은 닭에 대한 병원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 여부를 결정하므로 인체에 대한 고병원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올해 고병원성 AI를 일으킨 H5N1 바이러스는 유전자형이 2.3.2에 속하는 것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AI바이러스가 유행하

는 국가에서도 정상적인 유통체계를 거친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 등을 이용한 요리를 먹고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고, 이러한 가공요리에 대한 안전성은 국제보건기구(WHO)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우려에 따른 소비 기피현상은 국내 가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위축 또는 붕괴로 몰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조기검색체계 및 초기 대응 체계 확립 구축 등 각종 방역제도 및 대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표자가 제시한 방역대책 개선 방안으로는 닭 및 오리 도축장 검사 제도를 공영화하고, 재래시장 등에서 자가 도축 행위 금지 법제화 및 중간 유통 상인 등록제 실시 등이다.

토 론자로 나선 모인필 교수는 AI가 철새에 의한 오염이라면 올해 우리나라는 시기로 봤을 때 가는 철새라고 해야 하는데, 오는 철새에 더 발병 확률이 높지, 가는 철새에 의한 전염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철새로 쉬 결론 지어 버린 상황을 꼬집었다. 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황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는 빠른 진행과 효과를 위해 직접 방역을 담당하는 국립수역과학검역원에서 맡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창선 교수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AI와 광우병은 닭과 소라는 차이가 있지만 식품으로 이용한다는 점과 둘 다 언론에서 인체 감염을 운운하니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만을 부각하다 보면 사람들의 경계가 허술해지고

방역체계 구축이 미약해지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또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모든 체계를 담당하기 보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빠른 조사와 상황에 맞는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환중 교수는 서울의 관상 조류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 더욱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사람과 가축의 주거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후진국에서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감염동물과 고도접촉이 없는 한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상시방역체제가 제대로 구축되면 흑역 AI가 토착화된다고 하더라도 인체 감염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김 재홍 교수는 토론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지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 상인이 팔고 남은 닭, 오리를 냉동 보관하는 일이 생길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균도 잔존하게 되어 재오염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래시장 단속 이후 AI 확산이 잦아들었다며 재래시장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승철 회장은 사람들이 가공산물을 안 먹는 이유는 혹시 감염될까하는 걱정 때문인 것인데, H5N1 바이러스가 변종이 잘 일어난다고 해도 현재는 AI 자체로 끝이다. 특히 AI가 대유행이 되려면 독성이 강하고 조류에 큰 유행이 있어야 하며 조류와 사람의 중간 벽이 뚫려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염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인체 감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집 ① | HPAI 발생 및 평가

- HPAI 발생양상과 대응방안



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감염체 발생 이후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의 1/10만 예방에 책정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데, 예비에 인색한 것이 현 상황이다. 또한 무분별한 보도로 인한 사태 악화 후 뒤늦게 전문가가 나서서 '아니다', '괜찮다'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발생초기에 국민에게 확실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 무사히 잘 지나갔다고 생각할 찰나에 발생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취지 하에 개최된 토론회로 예방이 최선

마지막으로 진정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 친화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내는 바로 '휴먼인플루엔자'다. AI는 사람이 걸리는 감기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AI는 말 그대로 "조류인플루엔자"이기 때문이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목초액)

동광축산컨설팅(구,동광공업)

대표 : 최 성 태

휴대폰 : 011-374-8461~2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화 : (055)374-8461~2

팩스 : (055)375-8461